



최나연이 21일(한국시간) LPGA 삼성월드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 우승컵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챔피언 최나연

LPGA 도전 55번째만에 첫 우승

“지애야 고맙다”

‘54전55기’ ‘얼짱 골퍼’ 최나연(22·SK텔레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55번째 대회 출전 만에 감격스런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최나연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남코스(파 72·6천721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정상에 올랐다. 2위 미야자토 아이(일본)에 1타 앞섰다. 지난해 LPGA 투어 신인으로 본격적으로 데뷔한 최나연은 탄탄한 기본기에 ‘얼짱’으로 불릴 정도의 상품성도 갖춘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던 선수다.

그러나 포레인 신지에(21·미래에셋), 지

은희(23·힐라코리아), 박인비(21·SK텔레콤), 김인경(21·하나금융), 이선화(23·CJ) 등이 LPGA 투어에서 줄줄이 우승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최나연은 좀처럼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2008년 사이베이스 클래식과 예비양 마스터스에서 공동 2위가 개인 최고 성적이었다. 최나연은 예비양 마스터스에서는 3차 연장 끝에 우승컵을 헬렌 알프레드슨(스웨덴)에게 내줬다.

지난해 신인왕 레이스에서도 청야니(대만)와 시즌 내내 접전을 펼치다 결국 2위에

그쳤고 올해 3월 마스터카드 클래식에서도 2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를 달리다 마지막 날만 5타를 잃어 미끄러졌다. 이날 우승도 극적이었다.

3라운드까지 2위 신지에(21·미래에셋)를 2타 차로 앞섰던 최나연은 2번과 4번 홀(이상 파4)에서 2.4m와 6.4m의 만만치 않은 버디 퍼트를 놓으며 기세를 올렸다. 6번 홀(파5)에서는 이글까지 잡아내며 공동 2위였던 신지에, 미야자토를 무려 7타 차로 앞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은 듯했다. 그러나 9번

홀(파5)에서 1m도 안 되는 파 퍼트를 놓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10번(파4)과 11번 홀(파3)에서 연속 보기로 타수를 잃은 최나연은 그 사이 미야자토가 7.8, 12번 홀에서 연달아 버디를 잡아 급기야 1타 차로 쫓겼다. 미야자토는 16번 홀(파3) 티샷을 홀 2m에 붙이며 한 타를 더 줄여 기어이 공동 선두로 나섰고 반대로 최나연은 15번 홀(파4)에서 1m 파 퍼트를 또 놓치며 2위로 내려앉았다.

대역전패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는 순간

미야자토가 18번 홀(파5) 두 번째 샷을 물에 빠트리면서 역전 기회를 잡았다. 미야자토가 5m 정도 거리의 파 퍼트가 짧아 한 타를 잃은 덕에 공동 선두로 올라선 최나연은 18번 홀에서 1.2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침착하게 넣어 우승 상금 25만달러를 손에 넣었다.

최나연은 신지에와의 동반플레이에 대해 “한국에서 여러번 같이 경기를 했기에 편안했다. 내가 후반에 자주 흔들리니까 지애가 긴장하지 말고 쳐라고 말해줬다”면서 조연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신지에(오른쪽)와 최나연(왼쪽에서 두 번째)이 21일(한국시간) 열린 LPGA 삼성월드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 4번 홀에서 행글라이더 탑승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나연과 함께 챔피언 조에서 4라운드를 치른 신지애는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날 버디 3개에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로 2타를 잃은 신지애는 최자타수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는 크리스티 커(미국)가 이번 대회를 5언더파 283타(7구)로 마쳐 차이를 더 좁힌 것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삼성월드챔피언십 정상... 3위 신지에 “샷 흔들릴때마다 긴장 말라” 조언



KIA 축포 쏠 일만 남았다

6개월간의 그라운드 대장정이 마무리 된다.

오는 26일 잠실과 문학구장에서 2009 정규리그의 마지막 일정이 진행된다. 지난 주말 LG와의 홈 3연전 싸움으로 매직넘버를 1로 줄인 KIA 타이거즈는 24·25일 히어로즈와의 대결을 끝으로 올 시즌을 마감한다. KIA는 24일 군산팬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한 뒤, 2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으로 돌아와 시즌 최종전을 갖는다. 시즌 마지막까지 혼돈의 순위 싸움이 전개되면서 이번주 그라운드는 어느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22일에는 가을잔치의 윤곽을 확정짓는 ‘그라운드 전쟁’이 벌어진다.

가을잔치 티켓을 확보한 팀은 KIA, SK 그리고 두산. 남은 1장을 놓고 4위 롯데와 5위 삼성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한국시리즈 직행티켓을 향한 1위 다툼도 끝나지 않은 만큼 22일 경기를 치르게 되는 2위 SK, 4위 롯데, 5위 삼성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야구팬들의 탄성과 환호가 엇갈리게

SK 오늘 삼성전 패하면 ‘자동 우승’

24일 군산·25일 광주서 히어로즈 전

이번주 6개월 ‘그라운드 전쟁’ 마무리

했다.

특히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SK와 삼성의 맞대결은 올 시즌 최고의 명승부를 예고한다.

1위를 놓고 마지막 힘겨움을 하고 있는 SK는 네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두 경기가 남은 KIA의 매직넘버는 1.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서 KIA는 1승이 필요하고, SK는 4승이 필요하다. SK가 남은 네 경기에서 한 번이라도 진다면 KIA는 승리 없이도 우승 축포를 쏠 수 있다.

삼성도 살아남을 순위 싸움이다. 두 경기를 남겨놓은 롯데와 네 경기를 치러야

하는 삼성은 1게임차로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롯데가 2승을 할 경우 삼성의 4강은 물거품이 되지만, 롯데가 1승1패 이하의 성적을 내면 삼성은 남은 경기 성적에 따라 한 번이라도 승리하면 KIA는 승리 없이도 우승 축포를 쏠 수 있다.

남은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SK와 삼성이 맞붙는 22일. 이날 경기의 패배자는 순위 싸움의 패배자가 된다.

SK의 패배는 KIA의 우승을 의미하고, 히어로즈와 격돌하는 롯데가 승리할 경우 삼성의 패배는 4강 탈락을 의미한다. 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두 팀의 대결은

프로야구 중간순위 (21일 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KIA	79	48	4	0.603	5승
2	SK	76	47	6	0.589	15승
3	두산	70	57	2	0.543	2패
4	롯데	66	65	0	0.504	6승
5	삼성	64	65	0	0.496	3승
6	히어로즈	58	69	1	0.453	6패
7	LG	52	74	4	0.400	5패
8	한화	44	84	3	0.336	3패

그만큼 KIA 팬들에게도 최대의 관심사다. 15연승 질주중인 SK가 삼성에게 2승을 거둔다면 4강 팀이 모두 확정되지만 숨막힌 1위 싸움은 계속된다. SK의 패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면 KIA가 스스로 1위 싸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24·25일 히어로즈 대결에서 KIA가 1승을 수확할 경우 어느때보다 뜨거웠던 프로야구 2009시즌은 KIA의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흥행 돌풍 이어졌지만 아마야구 지원금 대폭 줄였다

전면드래프트 영향 커

문관부 국감자료

2009시즌 프로야구의 흥행 돌풍은 이어졌지만 전면드래프트 시행으로 아마야구 지원은 대폭 축소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의원이 2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프로야구 8개 구단 아마야구지원현황’에 따르면 전면드래프트 시행 이전인 2006년 프로야구 8개 구단의 아마야구 평균 지원금액이 1억 9천 만원에 달했으나, 전면드래프트가 도입된 2009년 평균 지원금액이 2천100만원으로 89% 가량 줄어 들었다.

2006년 3억2천500만원을 지원했던 삼성의 올 시즌 지원금액은 0원. 2006년 4천2백 만원으로 가장 적은 지원을 했던 히어로즈(전 현대)가 올 시즌 7천만원을 지출하며 유일하게 지원금액이 늘어났다.

아마야구 지원 감소는 앞으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

프로야구 8개 구단 아마야구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단	2006	2007	2008	2009
SK	119	137	5	5
한화	176	157	39	8
LG	138	153	7	2
히어로즈	42	37	60	70
두산	167	76	3	-
삼성	325	248	64	-
롯데	241	262	13	60
KIA	314	98	33	23

는 전면드래프트가 시행되면서 프로 구단의 지역 아마팀 지원 근거가 약화됐다.

광주일교·동성고·진흥고·군산상고·순천효천고 등 풍부한 야구 자원을 보유한 KIA도 전면드래프트를 놓고 실익과 명분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5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에서 전면드래프트 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해 다음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